
M I C R O T R E N D

01

INTERACTIVE
D I A L O G

빛, 소통을 이끈다 >

MICRO TREND REPORT 01

빛, 소통을 이끈다

INTERACTIVE DIALOG

LED가 확산되면서 조명의 역할이 더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인간의 움직임과 감정을 읽어내는 센서기술과, 현실 세계에 녹아든 가상현실 기술이 LED조명과 융합되어 시각적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통을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조명의 시각효과에 따라 '화려한 퍼포먼스의 조명 인터렉션' 과 '감성적인 조명의 효과를 활용한 인터렉션' 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소통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양한 분야의 콜라보레이션이 만드는 인터렉션한 소통의 장을 조명을 통해 살펴보자.

1. FANTASTIC DIALOG 빛, 화려한 소통을 이끈다

2. POETIC DIALOG 빛, 조용한 소통을 이끈다

CONTENTS

PAGE

02 INTRODUCTION

머리말

04 FANTASTIC DIALOG

빛, 화려한 소통을 이끌다

05 참여를 통한 자연과의 화려한 소통
SHARING THE NATURE

06 공간에 대한 상상력의 무한한 소통
SHARING THE IMAGINATION

07 관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통의 무대
SHARING THE EXPERIENCE

08 감정의 시각적 소통과 공유
SHARING THE EMOTION

09 화려한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즐거운 소통
SHARING THE MOVEMENT

10 DESIGNER&COMPANY INFO

11 POETIC DIALOG

빛, 조용한 소통을 이끌다

12 뇌파를 읽는 빛을 통한 안정과 치유
CONNECTION WITH THE BRAIN

13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기술과 빛의 조화
CONNECTION WITH THE FEELING

14 조용한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사람과 환경
CONNECTION WITH THE ENVIRONMENT

15 빛의 효과를 통한 보이지 않은 환경과의 연결
CONNECTION WITH THE INVISIBLE ENVIRONMENT

16 DESIGNER&COMPANY INFO

17 SUMMARY

요약&정리

INTERACTIVE DIALOG 01

FANTASTIC DIALOG

빛, 화려한 소통을 이끈다

조명은 주변이 어두울 수록 더욱 밝게 빛을 발한다. 하지만 이제 조명은 참여하고 공유할 것이 많은 소통의 공간에서 더욱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이번 FANTASTIC DIALOG에서는 조명과 미디어 아트와의 만남을 통한 참여 유도 인터랙션,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되는 조명 퍼포먼스 무대, 조명과 제품을 통한 감정의 공유, 조명과 미디어 애니메이션을 통한 무한한 상상력의 공간 활용, 움직임을 통한 시각적 즐거움 제공에 대한 사례를 보고 화려한 시각 효과와 함께 조명이 사람들과 어떤 'Sharing 공유'를 이끌어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를 통한 자연과의 화려한 소통

SHARING THE NATURE

TITLE One Beat One Tree
DESIGNER Naziha Mestaoui
PLACE Paris, France

WORK Lighting Installation
IMAGE SOURCE electronicsshadow.org
VIDEO SOURCE vimeo.com/82901439



One Beat One Tree는 2015년 12월, '파리 21세기 COP21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 맞춰 환경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제안된 인터랙티브 아방가르드 설치 미술이다. 스마트폰 앱과 자신의 심장 박동이 연동되어 프로젝션 맵핑 속 가상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파리 유명 건축물 파사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인 기후 협약 회의 인 만큼 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에 자라는 식물과 나무들을 렌더링하여 다양한 식물들을 디지털 트리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아트와 디지털 그리고 조명과의 만남으로 자연의 가치를 표현하여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많은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참여하는 시민들이 이 아트웍의 공동 제작자인 셈이다. 산업 근대화와 발전상에 자연을 융합하여 대도시가 마치 대 자연의 가상 세계공간으로 확장된 듯 하다. 스마트폰이 디지털 환경에서 상호작용함과 동시에 조명과 디자인, 예술의 만남이 사람들의 참여로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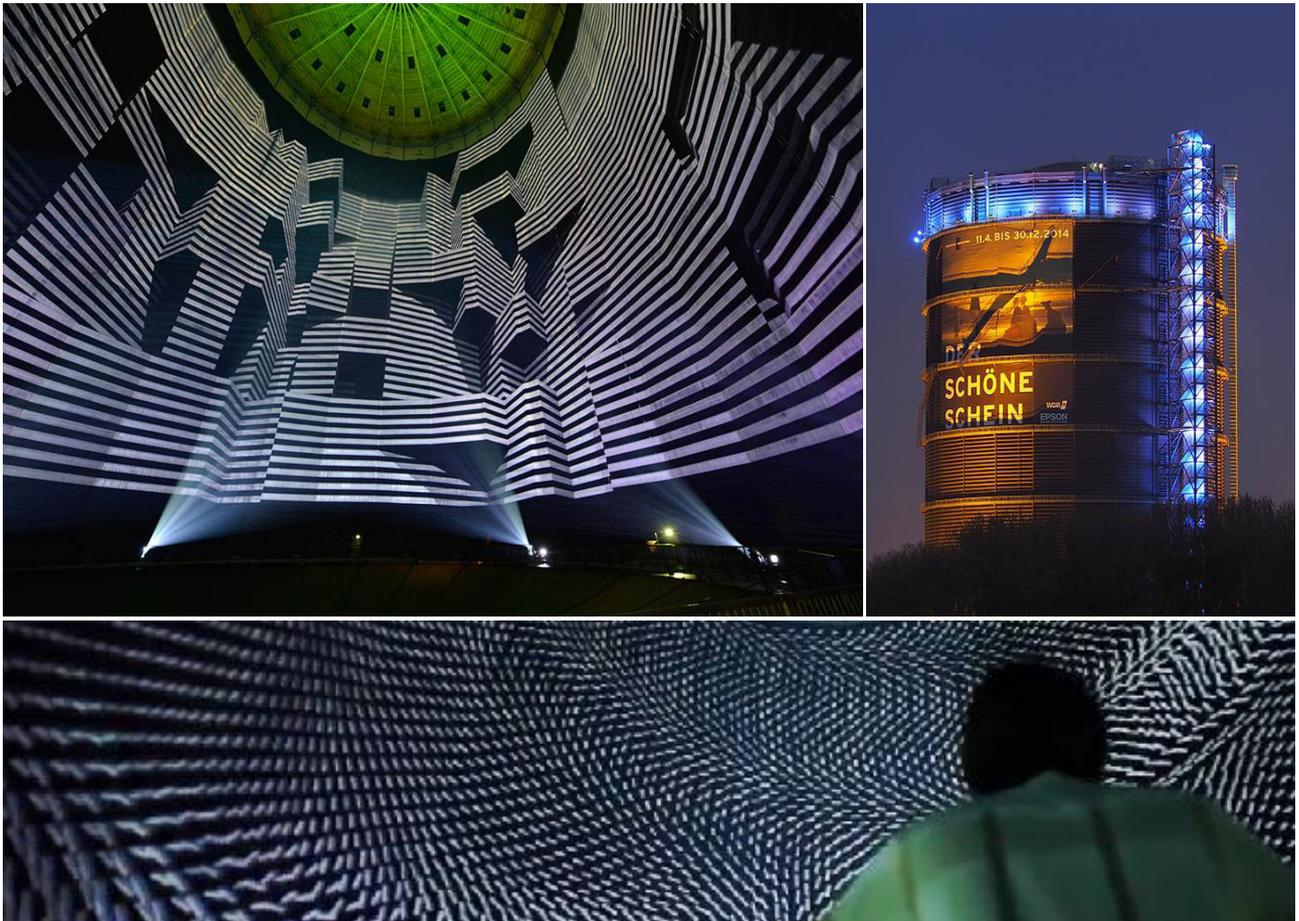
※ 파리 21세기 COP21 기후변화 협약 회의

교토의정서의 기간이 끝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협약을 준비하는 회담으로 UN기후정상회의를 통해 POST-2020 신기후체제 합의 도출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마련하고 2014년 2월 페루 당사국총회(COP20)에서 신기후체제 협정 초안을 작성하여 파리에서 신기후체제 협약을 완료할 예정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파리에 집중될 전망이다.

공간에 대한 상상력의 무한한 소통

SHARING THE IMAGINATION

TITLE	320° Licht	WORK	Lighting+Digital Interface
COMPANY	Urbanscreen	IMAGE SOURCE	thecreatorsproject.vice.com
PLACE	Gasometer Oberhausen, German	VIDEO SOURCE	vimeo.com/91599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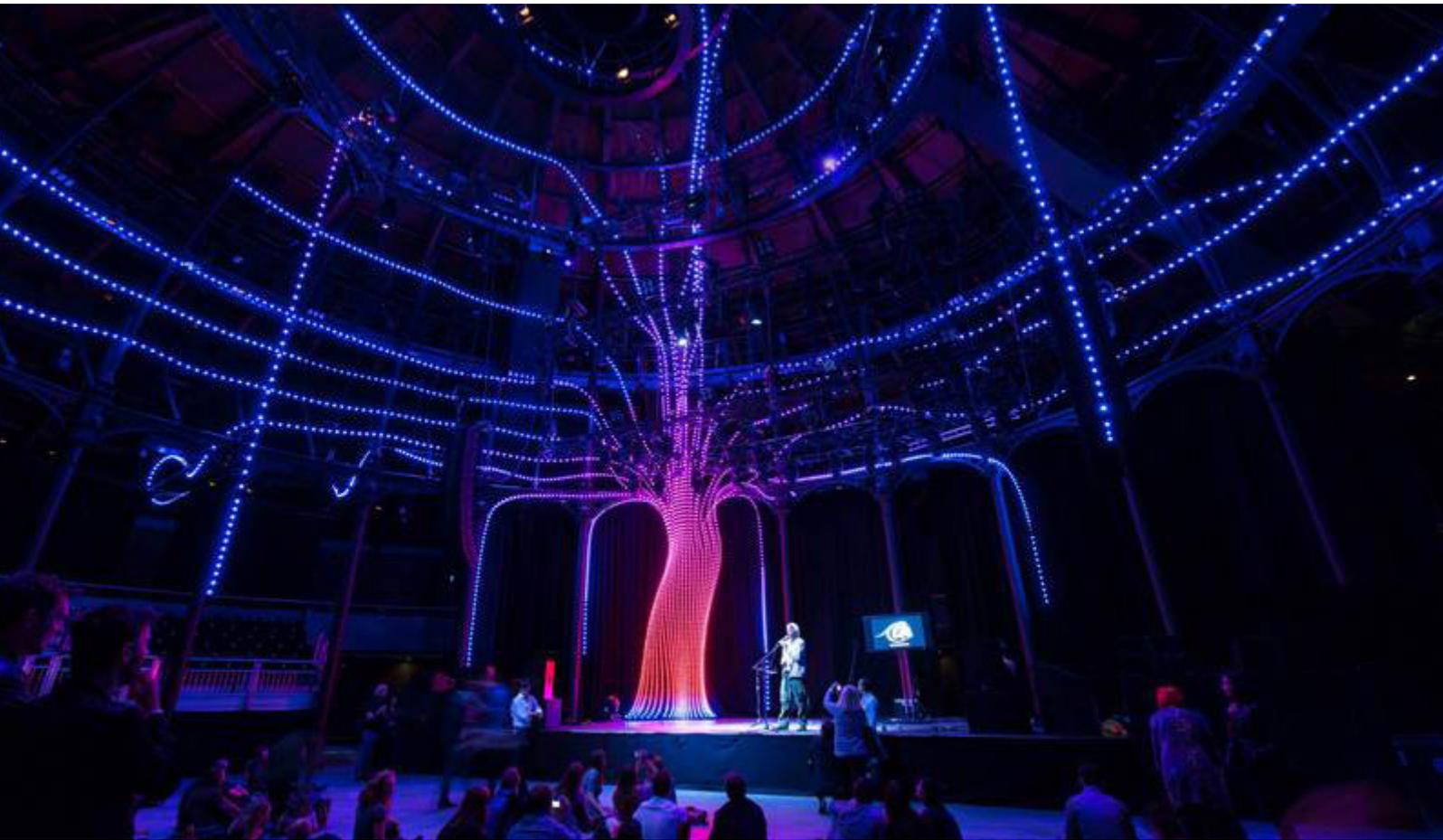


독일의 창작 스튜디오 Urbanscreen은 The Appearance of Beauty' 전시의 한 일환으로 거대한 조명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독일에 있는 한 가스탱크 안에 고성능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320도에 달하는 면적에 빛을 쏘아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인간의 거대한 상상력을 공간이라는 매개체로 보여주고 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공간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변화시켜 원통형 스크린으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선보이는 모습은 빛과 공간 활용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여 주는 듯 하다. 여기에 사운드 디자이너 Jonas Wiese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탱크 안의 소리와 울림을 고려한 음악을 만들어 거대한 벽이 가변적으로 움직이고 형태가 변화하는 모습을 극대화 시켜 더욱 신비로운 느낌을 선사한다. 앞으로는 모든 공간이 스크린이 될 수 있고, 디지털 인터페이스는 사회적 공간의 영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12월 30일에 'Creator's Project' 사이트를 통해 비디오로 공개할 예정이다.

관객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통의 무대

SHARING THE EXPERIENCE

TITLE	Arboreal Lighting	WORK	Interactive Lighting Performance
COMPANY	Atmos Studio	IMAGE SOURCE	atmosstudio.com
PLACE	Camden Roundhouse Venue, London	VIDEO SOURCE	youtube.com/watch?v=syx6egZA7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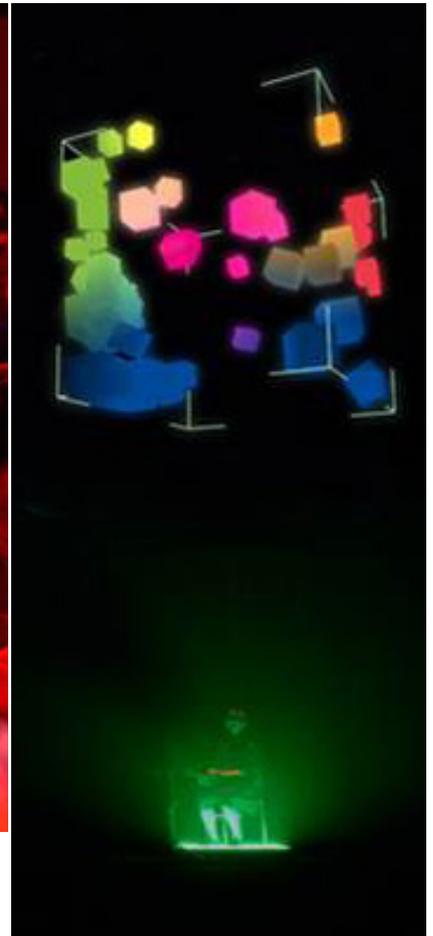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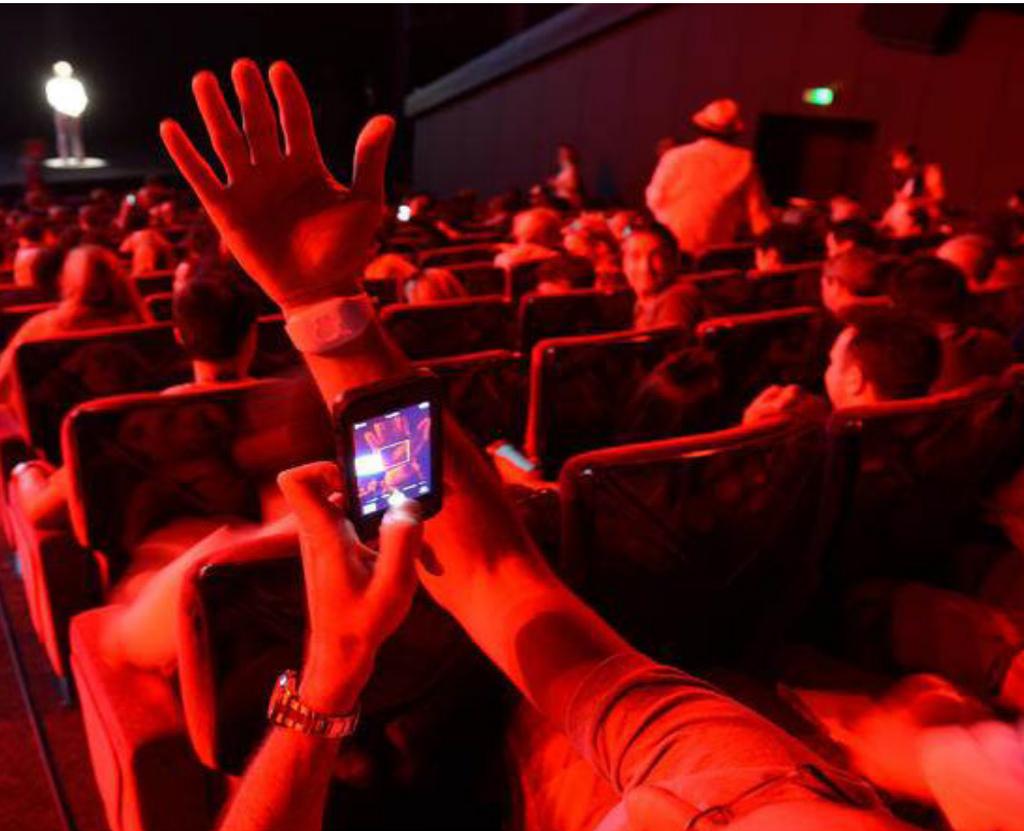


소리의 데시벨에 따라 반응하는 조명과 무대의 만남은 관객들로 하여금 시각적 재미를 더한 오감 만족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Arboreal Lighting'은 LED를 이용하여 음악 사운드와 가수의 목소리에 따라 조명이 즉각 반응을 하여 더욱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세로 24가닥, 전체 길이 총 1,500m, 총 4,800픽셀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 LED는 나무줄기를 형상화하여 무대에 설치되어 있다. 음악 뿐만 아니라 객석의 박수소리, 합성소리에도 반응하여 더 큰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영국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뮤지션의 음악소리와 관객이 내는 소리로 무대에 설치된 나무의 조명이 하나씩 켜지면서 완전한 나무를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이 매우 흥미롭다. 조명이 기술과 만나 무대라는 공간에서 관객과 뮤지션간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소리와 시각의 인터렉션이 공간적 특성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감정의 시각적 소통과 공유

SHARING THE EMOTION

TITLE	XOX Emotional Technoloty Platform	WORK	Lighting+Wearable Device
COMPANY	Studio XO, The Saatchi&Saatchi	IMAGE SOURCE	xoxemotionaltech.com
PLACE	2014 New Directors Showcase	VIDEO SOURCE	youtube.com/watch?v=nXaiWHexK0s



NDS 2014에서 2,300여명의 관중들이 센서리 밴드를 착용하여 다양한 퍼포먼스에 참여하였다. 이 디바이스는 생체 정보를 측정하여 기분 상태와 감정의 변화를 트래킹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사용자의 깊은 감정,기분을 분석한다. 여기에 LED 불빛이 기분과 감정 상태에 따라 반짝이고 동시에 수집된 정보는 화면에 실시간 시각화되어 보여진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공유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제공한다. 다수의 웨어러블 제품들이 신체적 건강관리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이 제품은 감정 영역을 트래킹 하면서 사용자의 감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참여를 통해 감정을 시각화 하는데 집중한다. 조명과 컬러 콘텐츠,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인간의 감정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소통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 디자인에 많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화려한 움직임이 만드는 즐거운 소통

SHARING THE MOVEMENT

TITLE	Kamiko	WORK	Lighting+Interactive Kinetic Sculpture
DESIGNER	Karlen Chang, Mixmotion	IMAGE SOURCE	kamiko.mixmotion.com
PLACE	The Erarta Museum, Russia	VIDEO SOURCE	vimeo.com/84164772



실험적인 마케팅, 이벤트, 전시 등을 전문으로 하는 Mixmotion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모양과 컬러를 바꾸는 인터랙티브 키네틱 인스톨레이션을 선보였다. 친숙한 종이접기인 '동서남북'의 모양에서 발전시켜 움직임과 모습이 익숙해 보인다. 종이처럼 보이지만 습기와 내구성이 강한 가벼운 합성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어 다 펴졌을 때의 지름 1.5m의 크기임에도 유연한 움직임을 낼 수 있다. 특히 이 모듈은 접히고 펴질 때 움직임의 표현이 극대화 되는데, 뇌의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센서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탐지하여 스스로 움직임을 만든다. 모듈 중앙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움직임과 동시에 조명의 컬러또한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인터랙티브한 물체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 움직임의 형태가 극대화 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 임팩트와 함께 즐거움을 선사함을 볼 수 있다. 최근 '움직임'과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사람들의 관계와 감정 커넥션이 오브젝트에 투영되어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어 또 다른 '움직임'의 화려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FANTASTIC DIALOG DESIGNER & COMPANY INFO

NAZIHA MESTAOUI

www.electronicshadow.org

Architecture+Art

공간 이미지와 디지털 세계의 혁신을 알리고 있는 벨기에 출신 건축가이자 예술가로 자연과 기술을 융합한 작품을 보여주고 있음.



URBANSOFT

www.urbansoft.com

Architecture+Music+Media Art etc.

독일 베를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장소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Large-scale 프로젝트를 맡아서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작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음.



ATMOS STUDIO

www.atmosstudio.com

Art+Architecture+Media

미디어, 제품디자인, 마스터플랜 등의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사용자에게 특별한 환경을 만드는 폭넓은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음.



STUDIO XO

www.studio-xo.com

Fashion+Technology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패션&테크놀로지 브랜드로 Lady Gaga의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음. 감성적 테크놀로지,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다양한 작업들을 시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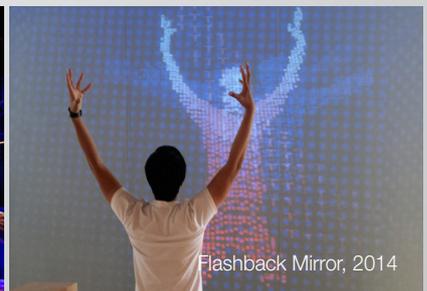


MIXMOTION

www.mixmotion.com

Marketing+Events+Exhibitions

실험적 마케팅, 이벤트 및 전시 등의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로 인터랙티브 디자인, 설치미술, 퍼포먼스, 모션그래픽 등의 폭넓은 분야의 작업을 진행중임.



POETIC DIALOG

빛, 조용한 소통을 이끈다

조명이 단지 화려한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역할만 한다면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제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조명은 때로는 은은하게 감성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 POETIC DIALOG에서는 개인적인 공간과 제품 속에서 조명이 어떻게 내면세계와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인간과 환경을 'Connection 연결'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의 뇌와 감정과의 소통, 사물인터넷과 인간과의 감정 공유, 사람과 환경 사이에서 조명의 상호작용과 무형과 유형 사이에서 만드는 조명의 사례를 통해 정적인 참여에 따른 빛과 소통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뇌파를 읽는 빛을 통한 안정과 치유

CONNECTION WITH THE BRAIN

TITLE Magick
COMPANY The Unseen
WORK Lighting+Color | Wearable Cap
SOURCE seetheunseen.co.uk

TITLE Neurotiq
COMPANY Sensoree
SOURCE Lighting+Color | Wearable Cap
SOURCE sensoree.com



The Unseen은 스와로브스키와 협력하여 4000개의 블랙위터 스파링을 사용한 웨어러블 헤어기어를 선보였다. 인간의 감정이 이 헤어기어에 투영되어 컬러 변화를 일으키는데, 머리의 에너지 손실에 따라 블랙 > 오렌지 > 빨강 > 녹색 > 파랑 > 보라색으로 변화한다. 뇌의 사용 영역에 따라 에너지 사용이 시각화되어 보여지는 셈이다. 컬러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마치 스와로브스키 보석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은 효과를 보이는데, 이 보석은 신체의 절연체 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감정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뇌와 호환하면서 컬러 변화를 일으킨다.

Sensoree는 Brain Animating Fashion으로 3D 프린터와 EEG 뇌파 센서를 이용하여 뇌 상태에 따라 컬러가 변화하는 니트 작품 NEUROTIQ를 선보였다. 빨강(델타파-깊은 수면), 노랑(세타파-명상), 하늘(알파파-릴렉스), 파랑(베타파-의식 상태), 혼합색(감마파-복합 감각)의 색과 조명에 따라 뇌 상태를 감성적인 시각적으로 알려준다. 사람들의 감정을 컬러와 조명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한 감각 기술로 미래에는 불면증 환자나 ADHD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이 두 사례는 사람과 감정의 연결을 서로 다른 기술로 확장시킨 사례로 '시각'의 영역이 감정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된 경우라 볼 수 있다. 조명은 앞으로 시각적 효과에서 나아가 감성적 인터랙션을 보여주는 요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기술과 빛의 조화

CONNECTION WITH THE FEELING

TITLE In Touch
DESIGNER Paul Leonard, Chris Clarke,
Joseph Hyde, David Plans

WORK Lighting+IoT Interactive Device
IMAGE SOURCE react-hub.org.uk
VIDEO SOURCE watershed.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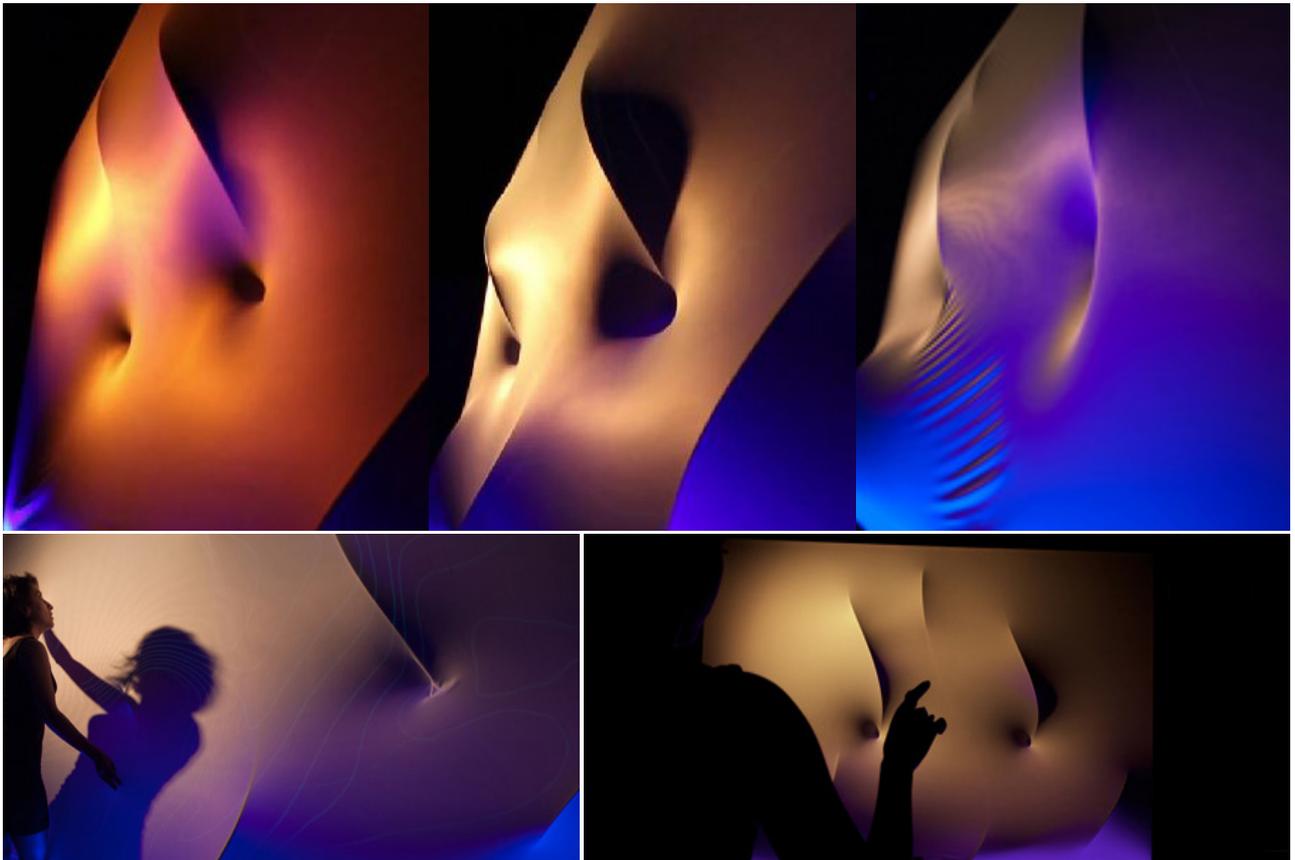


2014 영국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In Touch는 'React'와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으로 사물인터넷 프로토타입 제작 프로젝트 'Object Sandbox'의 일환이다. 2050년 500억 물체에 사물인터넷이 연결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가운데, 이 제품은 IoT를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커플,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토타입 디바이스이다. 햅틱 기술을 탑재하여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간에 빛과 촉감을 통해 깊은 감정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거리로 인해 말로는 표현되지 못하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목소리 만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감정이 사물인터넷 기술의 진보로 인해 더욱 감성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하다. 조명에 따른 시각적 활용이 감성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감정 공유 기술이 시각적, 감각적으로 또 다른 사물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관계와 감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질때 기술의 진보와 함께 더욱 인간적인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조용한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사람과 환경

CONNECTION WITH THE ENVIRONMENT

TITLE	Breathing Wall 2.0	WORK	Lighting+Interactive Kinetic Installation
DESIGNER	Behnaz Farahi	IMAGE SOURCE	behnazfarahi.prosite.com
PLACE	The USC School of Cinematic Arts, LA	VIDEO SOURCE	vimeo.com/97817800



이 작품은 손의 제스처만으로 벽이 움직이는 인스톨레이션으로 센서기반을 기술을 통해 스스로 신체적 변형을 일으킨다. 최근 인터랙티브한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주로 스마트폰과 그의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기술적인 인터랙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작품은 사람의 제스처에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허공에 손 동작 하는 것만으로 벽이 스스로 움직이며 변형하는데, 이 기술은 동작만으로도 언제든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판소재의 고무천과 안쪽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나무 프레임을 사용하였는데, 8개의 DC모니터와 컴퓨터 게임 컨트롤러 모션 센서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움직임의 정보를 보내주는 Arduino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장착되어 나무프레임이 바뀌면서 벽이 마치 움직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Leap Motion Controller가 튕기거나 두드리거나 드레그 하는 등의 손 동작을 포착하여 제스처에 따라 나무프레임이 각기 다르게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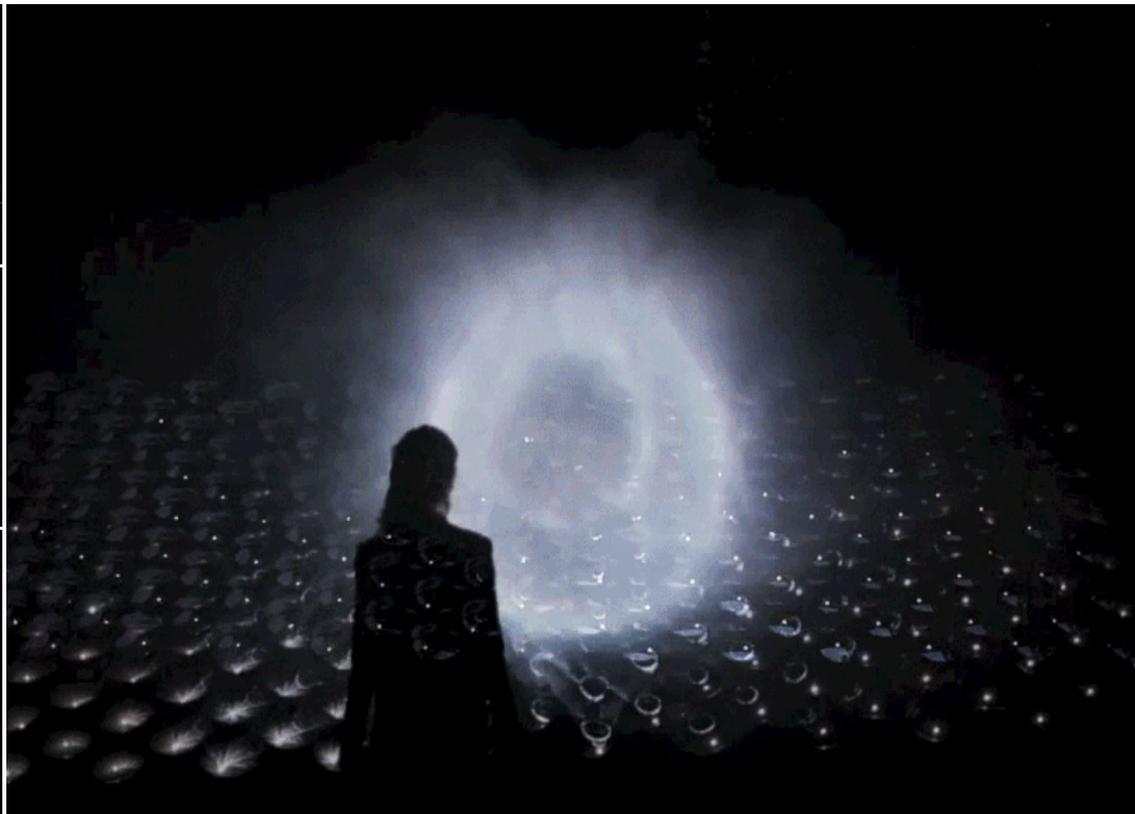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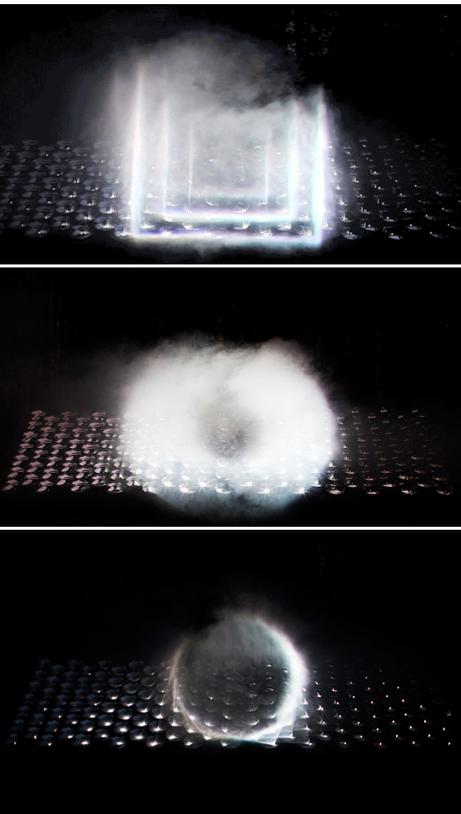
미래에는 사용자와 환경간의 인터랙션이 형성되는 직접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보여질 것이며, 제스처 만으로도 환경을 쉽게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빛의 효과를 통한 보이지 않는 환경과의 연결

CONNECTION WITH THE INVISIBLE ENVIRONMENT

TITLE Light Barrier
COMPANY Kimchi and Chips
PLACE Seoul Art Space, Korea

WORK Lighting+Media Art Installation
IMAGE SOURCE kimchiandchips.com
VIDEO SOURCE vimeo.com/100575793



한국의 손미미와 영국의 엘리엇 우즈로 구성된 디자인 스튜디오이자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팀인 '김치 앤 칩스'는 실험적인 시리즈 'Drawing in the Air'에서 'Light Barrier'란 작품을 선보였다. 7x2.2x5m 크기의 이 작품은 스모그로 채워진 어두운 공간에 수백만 가닥으로 분절된 빛이 볼록 거울에 반사되며 허공에 3D 이미지 드로잉을 만들어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빛을 만들고 볼록거울의 특성을 통해 빛이 교차되는 지점을 계산하고 그 교차점에 모인 빛으로 기하학적 도형을 구현하여 빛을 통한 애니메이션 그래픽 개체를 구현하는 독특한 작업이다.

캔버스가 된 공간은 경계가 사라지고 무한한 영역으로 확장되는데, 여기에 몽환적인 소리가 더해져 오묘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물질과 비물질사이에 떠다니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공기중에 드로잉을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이 작품은 디지털 그래픽으로 구현하여 색다른 매력을 주기 충분하다. 무형과 유형 사이에 만들어지는 모습은 단순하지만 환영적인 그래픽을 통해 현재 빛이라는 의미와 그래픽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POETIC DIALOG

DESIGNER & COMPANY INFO

THE UNSEEN

www.seetheunseen.co.uk

Fashion+Art+Technology+Science

Lauren Bowker의 디자인 스튜디오로 현재 생물학, 화학 등의 물질과 기술의 접목으로 새로운 영역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음.



Peachoo&Krejberg,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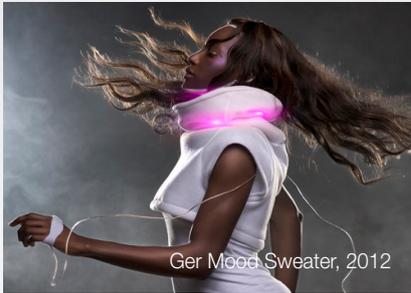
Air, 2014

SENSOREE

www.sensoree.com

Crafts Wearable Tech+Interaction

감각 기술과 친환경 재질을 사용한 패브릭과 Sensory Computer Interface(SCI)연구를 통하여 창의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의학 분야 등 연구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Ger Mood Sweater, 2012



Heart Sync, 2013

REACH

www.reach-hub.org.uk

Digital Tech+Humanities Research etc.

주로 아티스트와 인문학 연구자들간의 콜라보레이션을 지원하는 예술 및 창작 기술연구 분야의 4개 영국 허브 중 하나로 현재 Sansbox Project를 진행 중에 있음.



Reflector, 2014



Breathing Stone, 2014

BEHNAZ FARAH

www.behnazfarahi.prosite.com

Interaction+Art+Architecture+Tech

환경 인터랙션과 인간의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기술의 구현과 물질 작용 분야와 현대 미술&건축에 접목시켜 독특한 작품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음.



Alloplastic Architectur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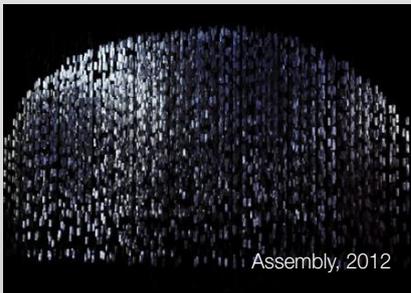
The Living, 2013

KIMCHI AND CHIPS

www.kimchiandships.com

Digital Media Art+Interaction Design

한국 출신 Mimi Son과 영국 출신 Elliot Woods가 결성한 디자인 아트 스튜디오로 사람, 사물, 자연과 기술간의 다양하고 독특한 인터랙션 설치 작품을 보여주고 있음.



Assembly,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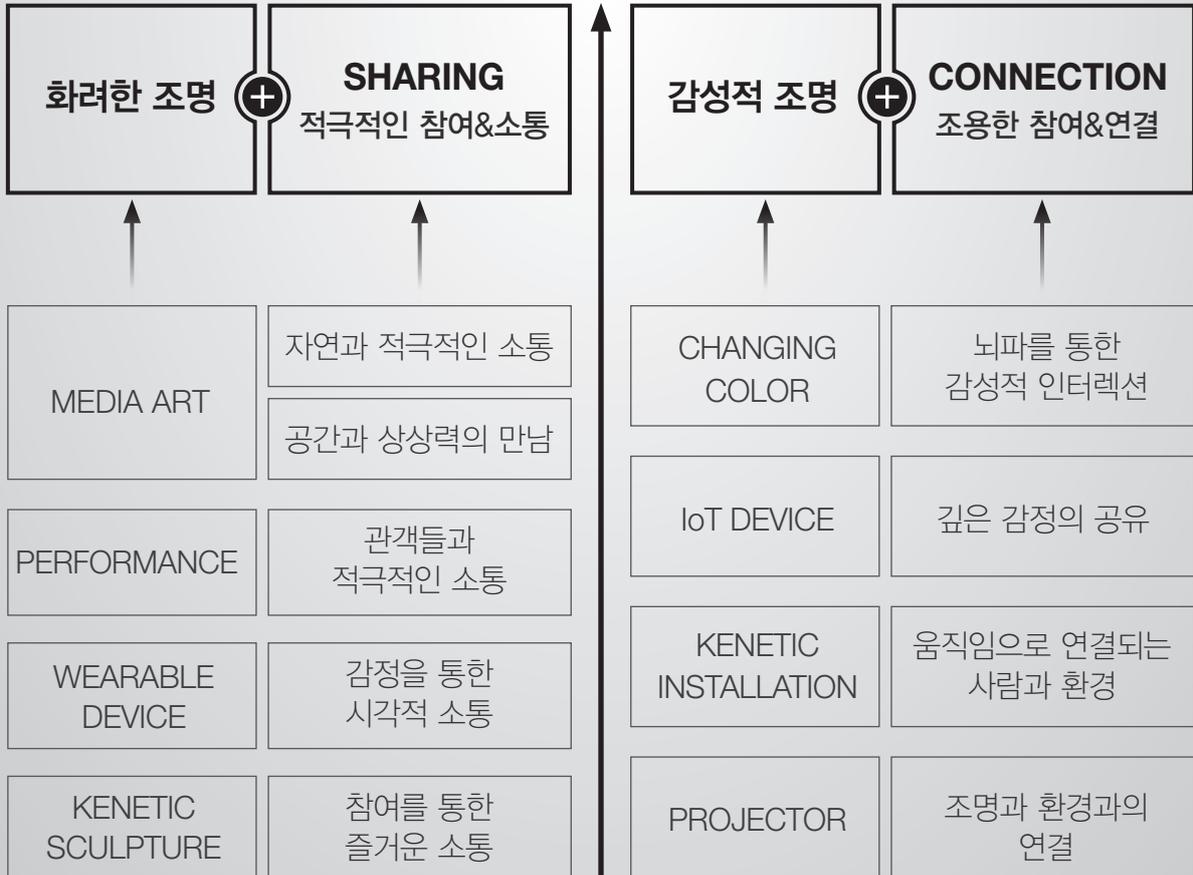


Line Segments Space, 2013

SUMMARY

지금까지 화려한 조명과 감성적 조명의 영역에서 빛의 역할과 다양한 소통을 살펴보았다.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키네틱 스퀴프처를 이용한 매력적인 시각적 효과와 함께 자연, 공간, 감정 등의 연결을 통해 적극적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공유를 이끌어 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컬러의 변화와 사물인터넷 기술, 키네틱 인스톨레이션,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감각적 시각 효과를 전달하고 감성, 감정, 환경과의 연결을 유도하여 깊고 조용한 소통을 이끌어 냄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보다'의 영역을 넘어 참여와 공유를 통해 더욱 발전된 소통으로 진화하고, 조명이라는 제품에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조명은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다른 영역과 융합되어 소통을 넘어 깊고 넓은 오감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INTERACTION



융합형 디자인 전략정보 개발 프레임

본 보고서는 '2차년도 융합형 디자인 전략예측·동향정보 활용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보 프레임을 적용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메가 트렌드/글로벌 이슈 트렌드/마이크로 트렌드/디자인 트렌드/융합 솔루션/미래비전 픽처라는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메가/글로벌 이슈/마이크로/디자인 트렌드의 4가지 카테고리의 정보들은 동시에 수집, 분석되어 다수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트렌드 보고서는 건강생활 / 일과 여가생활 / 가정생활이라는 3가지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들의 신제품 & 서비스 사례들을 분석한 것으로, 디자인 트렌드 콘텐츠가 개발되면, '융합 솔루션' 단계에서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여 디자인 융합 코드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가지의 카테고리에서 개발된 모든 보고서 내용은 '미래 비전 픽처'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종합·분석되고,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미래의 인간생활상과 디자인의 비전 키워드를 도출합니다.

01. 메가 트렌드

MACRO TREND

거시환경(경제/기술/사회&인구/환경) 중심의 트렌드 분석

02. 글로벌 이슈 트렌드

GLOBAL ISSUES TREND

글로벌 소비자 및 마켓 동향 분석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글로벌 전시

03. 마이크로 트렌드

MICRO TREND

인간감각을 중심으로 한 미시환경(아트/프로모션/문화아이콘 등) 사례분석

시각

미각

청각

후각

04. 디자인 트렌드

DESIGN TREND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한 신제품 & 서비스 사례 분석 & 미래유망 산업 분석

05. 융합 솔루션

건강생활

일과 여가생활

가정생활

의식/주
전자/운송

NEW
INDUSTRY

CONVERGENCE SOLUTION

디자인 트렌드 종합분석을 통한
디자인 융합코드 도출

06. 미래 비전픽처

FUTURE VISION PICTURE

최종 콘텐츠 분석을 통한 미래 인간생활상과 디자인 제시

2014

융합형 디자인 전략예측 동향정보 활용기반 조성사업

- 기획**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 www.designdb.com
총괄책임 김태완 디자인전략연구실장
실무책임 이경순 전략연구팀장 | 이수강 대리
연구책임 Global Future Group
손정민 대표 | 손효민 대표 | 이나진 책임연구원 | 신세라 책임연구원 | 이다연 선임연구원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략연구실 ☎ 031-780-2035 ✉ trend@kidp.or.kr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2014 융합형 디자인 전략예측 동향정보 활용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진행한 디자인트렌드 연구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으며
활용의 책임은 이용자들에게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쓰인 이미지는 연구, 분석 목적으로 쓰여 졌으며
출처는 각 보고서 해당페이지에 출처 표기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시행한
'융합형 디자인 전략예측 동향정보 활용기반 조성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 밖에 저작권관련 별도 협의가 필요하신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